"경희 신세대, 지식의 폭 좁고 문제의식 결여"

편협한 독서 지양하여 미래위해 정진해야

신세대, 흔히들 요즘의 젊고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들이 본인들을 스스럼없이 말하길 '신세대'라고 자칭한다.

신세대는, 자기 자신과 가족 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와 지나치게 사회에 만연된 향락주의, 금전만능주의가 낳은 자량스런 결과라는 비난과 조소와 함께, 항상 개성이 있으며 진정한 자유와 젊음을 만끽하는 똑소리나는 세대라는 칭찬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신세대 중의 하나인 경희인들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판단하는 경희 신세대들은 첫째, 아는 것이 너무도 없다. 우리가 꿈꾸어 오던 대학인, 우리가 어릴적에 항상 만물박사로만 보이던 우리들의 삼촌·형·누나 대학생들, 그리고 TV청춘극과 영화속의 대학인들 이들은 언제나 우리에겐 경외의 대상이었다. 뭐든지 잘하고 모르는 것이 없었던 그들이기에, 우리는 대학생만 되면 아는 것이 많아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본인들은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뵈보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과 함께.

신세대들은 UR 협상 반대에 대한 견해는 있지만, 왜 반대해야 하는 자 자신있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고, 기초 농산물군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지금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북한을 지금 상태에서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엄청나 기하학적인 숫자가 필요한지 알고 있는 이가 드물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요격율이 얼마나 되기에 한국에 배치되고, 그 미사일이 일제라고 말하면 고개를 가우뚱 거린다. 통일, 통일 하지만 정작 왜 통일이 필요한지 말하라면, 본인도 외아해 진다. 정두환 前 대통령과 노태우 前 대통령의 사이가 왜 나빠졌는지 알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도료는 로보트가 직접 칠하기에 오차없이 깨끗하게 칠해진다고 자랑스런 무식을 드러내고, 컴퓨터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대화하는 틈에서 슬그머니 나와야한다.

내가 이렇게 경희인들을 씨잡아 매도하여 끌어내리는 근본적인 근거는 우리들이 가끔 사용하는 도서관의 이용상태를 보고나서이다.

이제는 새내기가 아닌 현내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물어보면 은근슬쩍 피하고,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을 대출해본 역사가 없으며 열람실이 어딘지조차 몰라 신입생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자료도 제대로 찾지 못해 여기저기 묻다가는 급기야 빼꺼고는 기껏 한다는 얘기가 "우리 도서관에는 책이 너무 없다"는 쓸데없는 불평이나 한다. 그리고 대출증에 여전히 등록확인 도장을 받아가지 않은 사람이 전 학생의 약 85%라는 사실에서 실망과 함께 우리들에게 스스로 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어진다.

지식의 근원이 도서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싫든 좋든 우리학교의 지식의 창고는 도서관이다. 그럼에도 이용치도 않는 도서관에 대해서 혹평을 해대고 있다.

또 한가지, 도서관에서 대출하는 책의 종류는 거의가 전공서적 내지는 소설류가 대부분이다. 그외의 책을 빌려서 보노라면, 이공계생의 경우 그런 책은 왜 보냐는 이상스런 물음과 호기심(?)어린 눈초리를 감수해야 한다. 소설에도 지식은 있다. 그러나 거기서 얻을 수 없는 지식도 있다. 소설 등의보감을 읽어서는 자신의 체질이 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편식적인 독서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다소 빗나간 것 같다.

두번째는 경희인의 대부분이 의식을 내팽개치고 살고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문민정부 출범 이래 학생운동은 감시 소강상태를 맞이했다가, 작년과 올해 들어 'UR협상' 때문에 잠잠하던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다. 그런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아니다. 사실 학생운동은 그 설 시이 동안 이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게 도 간절히 바라던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대학생들은 할 일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는 대학생으로서의 문제의식 같은 것은 잃어버렸다. 아직도 우리나라엔 우리가 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전히 서울 주변에선 재개발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농민들은 쟁기를 놓으려고 하고 있고, 가전자들은 알래스카산 방하로 된 생수를 먹는다고 하며, 통일문제는 멀기만 하고, 산성비가 내려 빨래줄의 분홍색 티셔츠가 노란색으로 되기도 하고, 맞으며 자라나는 학대아동이 여전히 우리의 주위에서 존재하고, 아무자가 한국의 폭력배와 손을 잡고 있으며, 박정희 前 대통령은 미정보기관의 사주로 김재규에게 죽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너무도 어설프게 의식을 잃어 버렸다. 의식의 결여로 판단력도 없어져 가고있다. 가끔 대하는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의 사설란은 읽으면 모두가 그럴듯 하기만 하고, 한겨레신문의 사설란은 읽기가 다소 걷날 정도로 과격하고 신빙성이 없어보이기까지 한다. 상문고의 교육비리는 너무도 큰 파오라서 용인하면 안되고, 버스 승차장에서의 새치기는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직은 이럴 때가 아니다. '서울의 달'보다는 혜젤의 '변증법'과 멜러스의 '인구론'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때이다.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제학 시절에 세상을 보는 눈을 떠야 할 것이다. 내 눈에 비친 경희인들, 씩 좋은 인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잘못은 고쳐지기 위해서 존대한다고 했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에게서도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숙추린 개구리가 멀리 뛰다고 했으니, 이제 뛰어보자. 지금은 혁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미래, 완전한 세상을 꿈꾸며 정진해야 한다.

길 영 목 〈화공·2〉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 ; jang3
◇ 보냄곳 : 서울 · 수원(본사편집실) 전리안(ID) ; joo3

올바른 졸업문화 정착되길

졸준위, 성실한 준비 아쉬워

저는 이번에 졸업을 한 42회 졸업생입니다. 몇번이고 펜을 들려 망설이다가 결코 넘어가선 안될 일이기에 토로하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보람차고 뿌듯한 졸업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느낌을 펼칠수 없었습니다.

지난 93년 5월 졸업준비금 명목아래 우리 졸업생들은 6만원 가량의 금액을 졸업준비위원회로 납입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난 선배님들의 앨범을 보았던 탓으로 굳게 믿고 대학졸업 기념을 위해 당연히 이 앨범비를 내는 것으로 알았고 모든 학우들도 추억을 간직하고자 아무런 거리낌없이 준비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조잡한 편집과 뒷부분의 활동편의 무슨 출범식, 전군식, 추모식 등은 경희대학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앨범을 보고 "이 학교는 비싼 등록금 내고 매일 데모만 하고 다니는구나"하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학사모를 쓴 사진을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제가 너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만 꼬집는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졸업생 전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조사를 한다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강제형식'으로 넘긴 기념품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기념품이란 명목을 없애고 장학금으로 쓰여 진다면 몰라도 완전히 졸업생을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겨우 벨트용 열쇠고리를—여학우들은 어디에다 그런 것을 쓰겠습니까. 그런 가격으로 강매하는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들 이러는지 졸업생들이 '봉'입니까?

신문에만 크게 나와야 비리입니까. 이런 자그마한 것 조차 이모양 이꼴인데 나라정치 잘 못한다고 비아냥거릴자격이 과연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졸업가운에 대한 것인데 애당초 학교로부터 졸업생에게 온 안내문에는 가운 배부에처금 : 1만천원(가운 반납시 1만원 환불, 세탁비 1천원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막상 가운 반납시에는 학생회비인지, 장학금인지, 동창회비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사라져 버려 저뿐 아니라 많은 졸업생들이 너무나 의아해합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느 용도에 쓰일테니 협조해 달라"고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식이 끝나갈 무렵, 부모님들과 급히 식사하러 가는 것을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가운비는 어디로 잠적했을까요.

영수증을 보이고 앨범 및 기념품을 찾는 시간 또한 혼속행정이었으며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올바른 졸업식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익명의 졸업생이 우편으로 투고한 것입니다. 원고를 투고하실 때는 꼭 성명을 명기하시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성명을 적고 성명게재불가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註〉

朔風

무소불위의 언론을 다스릴 '그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기관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여론의 창구인가, 여론왜곡의 진원지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자본주의사회내에서 단순히 '정보'라는 상품을 팔아먹고 사는 기업체에 불과한 것인가.

그들은 대체 무엇이기에 세상의 온갖 일에 갖은 '훈수'를 두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시시콜콜 나서는 것인가.

그들은 정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풍임없이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파순꾼인가, 아니면 권력과 적극적으로 밀착하여 국민의 알권리는 적당히 채워주는 척만 하는 큰 '사이비집단'인가.

솔직히 우리는 그간 언론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훨씬 많이 경험했다. 이 언론의 역기능은 보도시점 순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사회가 불안할때는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큰 해악으로까지 나타난다.

각 언론사들은 항상 '정의'를 지향한다. 아니 그렇다고 그들은 사시(社是)에 적어놓고 있다. 언론자유니 민족문화창달이니 춘추필법이니 등등….

그러나 이들 언론사들은 과연 누가 감요하지도 않은, 자기들 스스로 내세운 사시(社是)에 걸맞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

대답은 뻔하다. 아니다.

권력에 아첨하고 자본의 단맛에 길들여져 국민아세하는 언론들유 유신시대부터 우리는 숱하게 많이 경험했다. 또 이들의 속성은 참으로 고약하기 짝이 없다. 그네들은 항상 심판관으로 행세하려 한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우려한다' '명쾌치방에 불과하다' 등등. 그리고 나서는 근본대책을 내놓으라고 욕박지른다. 그리고 이 욕구가 채워지면 무슨 트집을 꼭 잡아낸다.

그 좌은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작년 8월12일 오후 6시경 청와대에서 긴급발표가 있었다. 바로 금융실명제에 관한 것이다. 사실 언론에서는 금융실명제를 또는 비리를 한꺼번에 퇴치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쯤으로 생각하고 하루속히 실시하라고 야단들이었다. 그리나 사전 국회심의 여부가 어떠니,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해치운 깜짝쇼니 하면서 '바깥 다리'를 걸고 나섰다.

아니 국회를 거쳐야 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가. 미리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공개해버리면 소위 검은손들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뒷문으로 빠져 나갈게 뻔한데 그렇다면 솜방망이로 만들자는 것인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각종 비리로 인해 몇몇 유명한 인사들이 구속되자 표적수사니, 보복성이 짙다느니 하면서 뒷다리를 걸었고 특히 박○○ 의원의 경우엔 소위 대구정서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사뭇 위협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었다.

아니 대명천지에 대구가 박의원 개인의 것인가. 대구시민의 명예를 훼손해도 유분수지, 대구를 박의원 개인왕국쯤으로 보고 비아냥대는 그런 망언이 아닌가.

언론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언론을 통계할 그 부엇이 없다. 행여 정부가 나서면 언론탄압의 오명만 뒤집어 쓰게 되고 될 일도 안된다.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한다. 언론도 하나의 상품인 까닭에 소비자인 독자가 나서야 한다. 언론은 자기상품을 팔아주는 독자를 가장 무서워하기 마련이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언론을 다스릴 자, 그대 이름은 독자이외다.

〈春秋〉

독자초대석

이 병 하 〈미교·4〉

알림터

교수동정

윤엽 교수 방미

【서울캠퍼스】▲윤엽(의과대학·의학)교수=20일부터 30일까지 학회참석차 방미. ▲이경섭(한의과대학·한의학과)교수=21일부터 29일까지 한·양방 공동진단 활용하는 DITI 연수 세미나 참석차 방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박광재(국문·3) ▲문성환(국문·2) ▲김재림(영문·4) ▲손용은(영문·2) ▲이경원(철학) ▲허혜경(수학·4) ▲강건민(물리·2) ▲이호섭(화학·4) ▲이경돈(화학·4) ▲강종수(법학·1) ▲강치문(법학·2) ▲김기경(법학·2) ▲김룡(법학·1) ▲송규태(법학·2) ▲박철수(법학·2) ▲류낙형(행정·4) ▲김유일(행정·3) ▲서영수(행정·4) ▲심미영(정외·3) ▲고재완(정외·2) ▲조은식(신방·3) ▲학생회(신방) ▲이원빈(경제·3) ▲김건수(경제·4) ▲김태형(경제·1) ▲윤상우(경제·4) ▲박제형(경영·3) ▲전준(경영·2) ▲김정권(경영·4) ▲김창균(경영·2) ▲임상열(경영·1) ▲김정전(경영·4) ▲문길주(경영·3) ▲김종식(무역·3) ▲박종구(무역·1) ▲김영철(무역·4) ▲이명철(무역·4) ▲박종범(회계·3) ▲서건석(회계·4) ▲김소영(미교·92) ▲김현주(식영) ▲김유미(식영·4) ▲정미라(의상·3) ▲최준화(의상) ▲이진아(의원·1) ▲박선웅(간호·4) ▲한의대 편집위원회

【수원캠퍼스】▲이주환(행정) ▲진현용(회계·2) ▲김현수(회계·4) ▲김성훈(국제관계·2) ▲김병희(수학·3) ▲조진희(수학·3) ▲엄명용(물리) ▲송영균(환경·4) ▲정유동(기계·3) ▲김백기(전자) ▲손근기(전자·2) ▲정성훈(건축) ▲임용준(건축·2) ▲조용전(건축·3) ▲이대홍(토목·1) ▲안영신(도예) ▲채원(체육) ▲이성철(체육·2) ▲이승민(태권·3) ▲박정환(애지원102) ▲이권익(애지원113) ▲김세환(애지원301) ▲김길수(애지원412) ▲유례진(애지원431) ▲이지원(애지원534)

습 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학생증=▲김경희(국문·92) ▲상의황(철학·87) ▲박성욱(의학·92) ◇지갑=최재호

【수원캠퍼스】◇지갑=▲전영후

분 실

습득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화일=일기장, 시집, 편지가 든 빨간색 화일, 장건민(물리·2)

【수원캠퍼스】◇열쇠=▲지난 21일 체육대 앞

동문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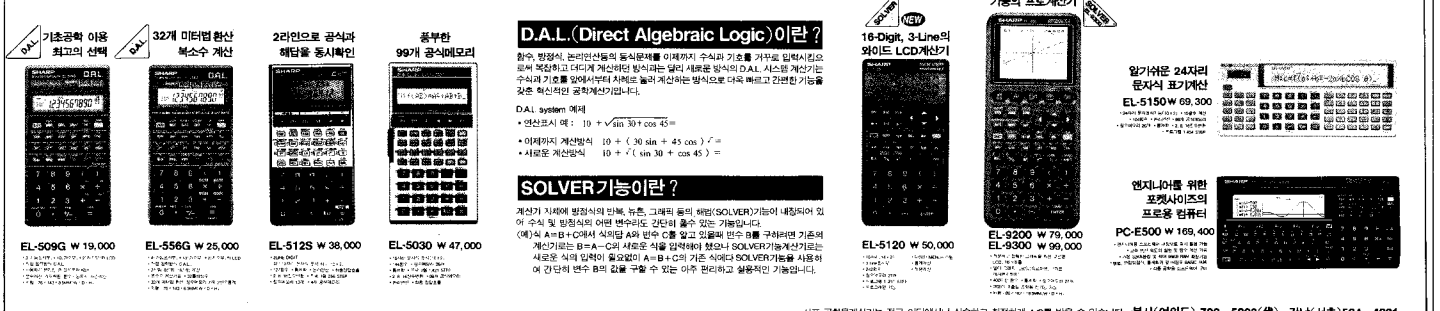
동북고 동문회

【서울캠퍼스】 ▲동북고=30일 오후 6시 대우정유점 ▲여의도고=4월 1일 오후 5시 30분 안주풍풍 ▲수원 화원고=29일 오후 5시 정문앞 ▲중경고=4월 1일 오후 6시 옥돌집 ▲안동고=31일 오후 6시 제대앞 녹원 ▲영신고=29일 오후 5시 신포니

【수원캠퍼스】 ▲안성고=28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효원고=31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현대고=31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세계인의 상표
SHARP

D.A.L. 시스템과 SOLVER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고 더욱 빠른 샤프공학용계산기



샤프 공학용계산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친절하게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여의도) 782-5803(代) 강남(서초)584-4801

판매처 및 A/S센터

샤프전자산업(주)